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99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7.02~2026.07.08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8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1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민선(위성곤), 미래(인공지능), 청년, 에너지, 공항(갈등)
경제·관광	가격(상승), 관광객(크루즈), 항공(노선), 탐나는전(소상공인), 감귤
지역·사회	구조(예방), 차량(단속), 사기(사칭), 교사(학생), 폭염(기온)

※ 분석 기간 : 26.07.02.~26.07.08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민선 (위성곤)	- 기후경제 중심 민선 9기 첫 조직개편 단행 - 도의회 452회 임시회, 민선 9기 첫 업무보고 - 민선 9기 첫 타운홀 미팅·회의체계 개편
	미래(인공지능)	- AI·에너지 대전환 미래산업 청사진 공개 - 1조원 제주미래성장펀드 조성 추진 - 바당 AI 데이 등 AI 교육·인재양성 확산
	청년	- 옛 신한은행 빌딩, 청년주택 61호로 재생 - 탐나는인재 13기 모집, 월 최대 150만원 - 제주형 5극3특 공유대학 구축 본격화
	에너지	- 제주형 에너지 기본사회 실행계획 추진 - 기후에너지국 신설 등 기후경제수도 개편 -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임박, 인상 우려
	공항(갈등)	- 제2공항 갈등 민관협의체 내달 구성 - 제2공항 상생발전 용역 7년째 표류 - 성산 토지거래허가구역 11년 만에 해제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가격(상승)	- 6월 소비자물가 3.4% ↑, 39개월 만 최대 - 주유소 기름값 담합, 공정위 과징금 20억 - 복날 외식물가 상승, 물가안정 대응 추진
	관광객(크루즈)	- 상반기 크루즈 입도객 16.2% 감소 - 타이중·칭다오와 관광교류 협약 체결 - 런케이션·웰니스 등 체류형 관광 확대
	항공(노선)	- 제주 국내선 공급좌석 석 달째 감소 - 국내선 유류할증료 인하, 관광 회복 촉각 - 제주~중국 노선 증편·동계 특가 잇따라
	탐나는전(소상공인)	- 탐나는전 10% 캐시백 7월 중 일시 중단 - 제주은행, 연 4.5% 탐나는전 파킹통장 출시 - 골목상권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확대
	감귤	- 하우스감귤 가격 호조 속 출하 증가 전망 - 감귤 가공공정 AI 전환, 국비 23억 확보 - 하우스감귤 전국 판촉·동남아 수출 개척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구조(예방)	- 해루질 관광객 밀물 고립, 해경 구조 - 어선 좌초·응급환자 등 긴급구조 잇따라 - 테트라포드 추락사고 대비 합동 구조훈련
	차량(단속)	- 통학차량 원아 방치, 교사·기사 입건 - 차량 충돌·화재 등 사고 잇따라 - 공공부문 차량 부제 84일 만에 전면 해제
	사기(사칭)	- 소방기관 사칭 사기 10건, 피해 8070만원 - 노쇼 연계형 사기 95건, 피해 33억원 - 애월 아파트 시행사 40억대 사기 의혹
	교사(학생)	- 교사 고소·협박 수사 1년째, 엄벌 촉구 - 체육관 추락사고 교사, 대법 무죄 확정 - 중학교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설명회 운영
	폭염(기온)	- 올해 첫 폭염주의보 발효, 특보 확대 - 첫 열대야 발생, 무더위 지속 전망 - 6월 평균기온 역대 4위, 장마는 지각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6년 7월 2일~7월 8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992건임
 - 정치·행정 분야 306건, 경제·관광 194건, 지역·사회 492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민선(위성곤), 미래(인공지능), 청년, 에너지, 공항(갈등)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민선 (위성곤)	- 기후경제 중심 민선 9기 첫 조직개편 단행 · 위성곤 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공개해 정무부지사를 기후경제정무 부지사로 변경하고 기후에너지국·기본사회추진단·AI행정추진단·제2공항지원단·소통담당관 등을 신설하며, 조직을 16실국 68과에서 15실국 70과로 재편하고 정원을 35명 늘린 6751명으로 확대하되 3급 이상 정원은 감축하기로 함. · 조직 개편안을 담은 조례가 7월 말 제주도의회를 통과해도 하반기 정기 인사는 8월 18~21일 나흘간 진행되는 을지연습 일정과 행정시장 임명, 옛 경찰
-------	-------------	--

정치·행정	민선 (위성곤)	청 리모델링 등 변수로 한 달 뒤인 8월 말에 단행될 예정이며, 민선 8기 핵심 조직이던 특별자치분권추진단과 15분도시추진단은 폐지되는 것으로 확인됨. - 도의회 452회 임시회, 민선 9기 첫 업무보고 · 제13대 제주도의의회가 9일 제452회 임시회를 개최해 오는 16일까지 회기를 진행하며,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친 뒤 처음으로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제주도정과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등을 심사하는 등 8개 상임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집중 점검할 예정임. · 송영훈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은 8일 제주도를 방문해 위성곤 지사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앞서 2일 열린 4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 하성용, 행정자치 이경심, 보건복지 이경철, 미래경제 김기환 등 8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제13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됨. - 민선 9기 첫 타운홀 미팅·회의체계 개편 ·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도민 목소리를 직접 듣는 첫 타운홀 미팅 '우리의 목소리가 제주의 미래가 됩니다'가 11일 오후 2시 국제컨벤션센터 제주 탐라홀 A에서 개최되어 민선 9기 핵심가치와 7대 전략과제를 도민에게 소개하고 민생 현안과 정책 제안을 현장에서 수렴할 예정임. · 도정 현안 대응과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해 회의 체계를 보고 중심에서 의사결정과 이행 점검 중심으로 전환하고 행정시 현안회의를 격주로 정례화하며 공공기관장 회의를 격월로 신설하는 한편, 위성곤 지사의 첫 확대간부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등 일하는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혁신을 추진함.
	미래(인 공지능)	- AI·에너지 대전환 미래산업 청사진 공개 · 제주도 혁신산업국이 민선 9기 7대 전략과제 중 AX(AI 대전환)·기후에너지·인공지능 행정혁신·인재양성 등 4개 과제와 100대 공약 중 소관 15개 공약사업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5년간 총 3조8223억원을 투입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미래산업 밑그림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됨. · 그린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도민 누구나 이용하는 AI 서비스, 바이오산업 전주기 상용화 혁신 벨트 조성, 우주·스마트도시 등 강점 분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며, 성과가 도민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대규모 국비 확보와 전문인력·산업 생태계 조성이 과제로 지적됨. - 1조원 제주미래성장펀드 조성 추진 · 위성곤 지사가 6·3지방선거 당시 도민들이 소액으로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성장의 결실을 배당 형태로 받는 '자본 민주화'를 실현하고 이를 도민의 기본자본으로 삼겠다며 공약한 1조원 규모 제주미래성장펀드 조성이 민선 9기 도정의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함. · 펀드로 1조원이 모이면 관광을 포함한 미래산업에 투자한다는 구상이나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설득이 관건으로 진단되며, 민선 8기 핵심 공약이던 상장기업 육성·유치가 실패로 끝난 가운데 상장기업 육성펀드 3호 변경과 신규펀드 방향 선회 등 기존 투자 펀드의 재조정 가능성도 제기됨. - 바당 AI 데이 등 AI 교육·인재양성 확산

정치·행정	미래(인공지능)	· 제주도교육청이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육 확산을 위해 9일 탐라교육원 연수관에서 도내 각급학교 교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2026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바당 AI 데이'를 개최하는 등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와 AI 기반 미래교육 확산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확인됨. · 제주더큰내일센터는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WE호텔 제주에서 AI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프로토타입 개발을 주제로 '빛나는 인재 AI Re-local 해커톤 창업캠프'를 열었으며, 복약 안부 서비스 '고씨봄'이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청년 AI 창업 역량이 확인됨.
	청년	- 옛 신한은행 빌딩, 청년주택 61호로 재생 · 제주시 일도1동 원도심 칠성로 인근 옛 신한은행 빌딩을 활용한 비주택 매입 임대 사업이 국토교통부 2026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에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으로 최종 선정되어, 총 222억원을 투입해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고 청년 임대주택 61호와 지원시설을 조성해 공급할 예정임. · 이번 공모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청년의 정착과 성장을 돕기 위해 주거 공간과 일·자리·창업 지원시설을 복합 용도로 배치하며, 원도심에 방치된 유휴 건물을 청년 특화 공공임대주택으로 재생해 원도심 활성화와 청년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탐나는인재 13기 모집, 월 최대 150만원 · 제주도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제주더큰내일센터가 제주에서 취업과 창업, 지역 정착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탐나는인재 13기' 참가자를 16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하며, 모집 인원은 40명 내외로 제주지역 청년 75%와 다른 지역 청년 25%를 선발하는 것으로 확인됨. · 참가자에게는 월 최대 150만원과 교육 기회가 지원되고 모집 분야는 취업 과정과 창업 과정으로 운영되며, 서귀포시청년지원센터도 18일까지 지역 청년에게 맞춤형으로 모임을 지원하는 '서귀포청년 로컬액션 사업' 참여자를 모집해 지역청년 2개 팀에 맞춤형 모임을 지원하는 등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 이어짐. - 제주형 5극3특 공유대학 구축 본격화 · 제주도가 교육부의 5극3특 공유대학 사업에 맞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제주형 공유대학 구축에 나서며,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협력해 바이오·에너지·관광·우주 분야에서 지역 산업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됨. · 지난 6일 지역 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상 설명회를 열어 참여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와 함께 어촌 정착 의지가 높은 청년이 군 복무 대신 수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도 17일까지 모집되는 등 청년의 지역 정착 지원이 다각도로 추진됨.
	에너지	- 제주형 에너지 기본사회 실행계획 추진 · 제주도 혁신산업국이 에너지 대전환을 축으로 하는 민선 9기 미래산업 실행

정치·행정	에너지	계획을 공개해 해상풍력의 체계적 개발과 재생에너지 확대, 제주형 에너지 기본사회 구현을 추진하며, AI·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를 포함해 5년간 총 3조8223억원을 투입하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됨. · 그린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함께 재생에너지 수익을 도민과 나누는 햇빛소득 마을을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등 성과가 도민 이익으로 환원되는 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으며, 혁신산업국 내 에너지산업과가 5건의 에너지 관련 공약사업을 전담해 추진하는 등 실행 체계도 갖춰진 것으로 파악됨. - 기후에너지국 신설 등 기후경제수도 개편 ·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으로 정무부지사가 12년 만에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이름과 기능이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되며, '기후경제수도'를 전면에 내세워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위성곤 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기후경제정무부지사는 소관 업무를 미래산업 분야에 집중하게 되며, 조직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7월 말 도의회에서 처리되면 8월 말 정기인사와 함께 새 조직 체계가 본격 가동될 예정으로, 도정 내 에너지·기후 정책의 조직적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임박, 인상 우려 · 발전소와 가까워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게,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지역의 요금은 높게 책정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소비 전력의 약 25%를 육지에서 들여오는 제주도의 전기요금 인상과 도민 부담 증가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으로 확인됨.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도매 전기요금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2분할하고 산업용 소매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전력자금 여건이 불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 중인 제주지역의 요금 부담가중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과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공항(갈등)	- 제2공항 갈등 민관협의체 내달 구성 · 제주도가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 권고에 따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다음 달 구성할 예정으로, 찬반 단체를 비롯해 경제 관련 단체와 공무원 등이 참여해 쟁점을 검증한 뒤 내년 초까지 도민 자기결정권을 위한 여론 수렴 방식을 결정한다는 구상으로, 갈등 해소의 전기가 될지 주목됨. ·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도 6일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도내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의회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도의회와 도정 양쪽에서 민선 9기 제2공항 갈등 해결 논의가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됨. - 제2공항 상생발전 용역 7년째 표류 · 제2공항 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상생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이 지난해 2월 재개된 지 1년 반 만에 주민 의견 수렴 난항으로 다시 중단되어, 2019년 첫 용역 발주 이후 7년째 매듭을 짓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 · 제주도는 완전 중단이 아닌 일시 정지라는 입장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정치·행정		절차에 진전이 있는 후 용역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제2공항 배후도시 관련 지역발전 용역이 1년 반 만에 또다시 멈춰 서면서 성산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생발전 계획 수립이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우려됨. - 성산 토지거래허가구역 11년 만에 해제 ·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성산을 전역에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 107.6㎢(5만2943필지) 가운데 제2공항 부지를 제외한 102.1㎢가 11년 만에 해제되어 지난 5월 8일부터 토지 거래 제한이 풀렸으며, 허가구역 조정 내용은 지난 4월 29일 공고된 것으로 확인됨. · 이번 조정은 건설경기 불황과 지가 변동률·토지 거래량 둔화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되며, 제2공항 부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관리됨. 11년간 이어진 거래 규제가 대부분 풀리면서 성산을 일대 토지 거래 활성화 여부와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가 주목됨.
-------	--	--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가격(상승), 관광객(크루즈), 항공(노선), 탐나는전(소상공인), 감귤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가격(상승)	- 6월 소비자물가 3.4% ↑, 39개월 만 최대 ·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의 6월 제주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4% 상승해 3년 3개월(3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류가 21% 오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확인됨. · 항공료와 여행비도 20%대 급등을 지속하고 농산물이 5.6% 오르며 오름폭을 확대한 가운데, 고등어가 32.2% 뛰는 등 수산물은 6개월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 서민 밥상물가 부담이 커졌으며, 도내 물가 상승률은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하며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유소 기름값 담합, 공정위 과징금 20억 · 제주지역 일부 주유소들이 휘발유·경유·등유 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으며,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가 제주시농협·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회원사들의 판매 가격으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준수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됨. · 담합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경질유 판매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공정위는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과징금 20억원의 제재를 부과함. 유가 담합이 이뤄진 단체 채팅방 정황도 공개되면서 지역 기름값 산정 구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이 요구됨. - 복날 외식물가 상승, 물가안정 대응 추진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5월 기준 제주지역 주요 외식 품목 8개 중 6개 품목의 가격이 1년 전보다 올랐으며, 복날을 앞둔 삼계탕 가격이 1년 새 6.3% 오르고 삼겹살 1인분(200g) 가격은 10% 넘게 상승해 고물가 속 서민들의 외식비 부담이 갈수록 커진 것으로 확인됨. · 제주시는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전문 컨설턴트를 공개 모집하고, 제주도는 8일부터 20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추천하면 모바일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는 SNS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물가안정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대응을 추진함.
	관광객(크루즈)	- 상반기 크루즈 입도객 16.2% 감소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올해 제주지역 크루즈 입도객(승객+선원)은 총 36만69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만7763명보다 16.2% 감소해, 크루즈 기항지로서 제주의 매력을 되찾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며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됨. · 제주도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주관하는 제13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ICC 제주에서 열려, 15개국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크루즈 관광 데이터 해커톤과 포트 세일즈 등을 진행하며 동북아 크루즈 허브 도약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 타이중·칭다오와 관광교류 협약 체결 · 제주도관광협회가 지난해 직항노선이 연결된 대만 타이중시여행상업조합과 신규 우호협약을 체결해 공동 마케팅과 여행상품 개발을 추진하며, 제주 외국인

	관광객(크루즈)	관광시장의 핵심 국가인 대만의 타이중 지역 관광 시장 공략과 관광객 유치 기반 강화를 위한 현지 여행업계와의 협력에 나선 것으로 확인됨. · 협회는 3일 제주 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2026 제주-차이나 경제무역포럼에서 중국 칭다오시 문화관광국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제주와 칭다오 간 지속 가능한 관광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했으며, 대만·중국 등 핵심 외국인 관광시장 공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됨. - 런케이션·웰니스 등 체류형 관광 확대 · 프랑스 대학생부터 70대 시니어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 21명이 올여름 제주에 20일간 머물며 한국어 교육과 제주 문화 체험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런케이션'에 참여하는 등 제주도가 운영하는 외국인 대상 장기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됨. · 서귀포치유의숲은 2026 제주웰니스 인증관광지 품질강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전담 관광통역안내사와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이 없어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웠던 5성급 호텔 투숙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동서비스와 통역 지원을 결합한 맞춤형 웰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임.
경제·관광	항공(노선)	- 제주 국내선 공급좌석 석 달째 감소 ·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6월 제주공항 국내선 공급좌석 감소세가 4월 이후 석 달째 이어지며 제주~김포 노선 항공기가 1일 평균 11편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고, 항공사들이 고유가 상황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대로 운항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공급 불안정이 심화된 것으로 확인됨. · 공급좌석 축소로 항공권 구하기가 어려워진 데다 6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유류할증료로 항공 비용이 증가해 여객이 감소했으며, 고환율과 누적 적자 부담 속에 LCC 재무 악화와 노선 효율화가 이어질 경우 항공 공급석 의존도가 높은 제주 하늘길 축소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 국내선 유류할증료 인하, 관광 회복 촉각 · 중동 전쟁 여파로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으며 항공 비용 부담을 키웠던 국내선 항공료 유류할증료가 중동 분쟁 완화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으로 내림세를 보이며, 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부터 발권하는 국내선 항공료에 인화된 유류할증료를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됨. · 제주지역 관광업계는 여행비용 부담 등으로 5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이 유류할증료 인하를 계기로 일부 회복세로 돌아설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항공료 부담 완화 여부가 항공 공급석 의존도가 높은 제주 관광시장 회복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주목됨. - 제주~중국 노선 증편·동계 특가 잇따라 · 중국 항공사 길상항공이 여름 성수기 한중 관광 수요 증가에 맞춰 제주발 중국 직항노선을 주간 총 34편으로 확대해 제주~상하이 주 20편, 제주~난징 주 9편, 제주~우시 주 5편을 운항하는 등 국제선 하늘길 확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제주 관광시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제주항공은 동계 스케줄 판매 시작에 맞춰 국내선은 7일 오전 10시, 국제선은 8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4일 오후 5시까지 최대 할인 프로모션 '썸(JJIM)' 특가를 진행하며, 국내선 항공권을 최저 2만9800원부터 판매해 연말연초 여행

경제·관광	항공 (노선)	수요 선점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됨.
	탐나는 전(소상공인)	- 탐나는전 10% 캐시백 7월 중 일시 중단 ·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결제할 때 받던 10% 캐시백 적립이 7월 중 일시 중단될 예정으로, 올해 캐시백 적립 지원에 425억원이 투입됐으나 탐나는전 이용이 급증하면서 예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된 데 따른 조치이며 구체적인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제주도는 8월 중 캐시백 적립이 재개될 수 있도록 2회 추가경정예산에 인센티브 예산 420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도의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며, 캐시백 재개 여부가 추경 처리에 달려 있어 도의회 협의 결과에 소상공인과 지역화폐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은행, 연 4.5% 탐나는전 파킹통장 출시 · 제주은행이 지역화폐 탐나는전 플랫폼 회원을 대상으로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상품 '탐나는전 파킹통장'을 6일 출시했으며, 생활비나 비상금을 자유롭게 입출금하면서 잔액 구간별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탐나는전은 제주도가 발행하는 제주형 지역화폐로 제주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도민뿐 아니라 관광과 워크케이션 등으로 제주를 찾는 방문객도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플랫폼에 가입해 선불카드나 체크카드 방식으로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해 지역화폐 이용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골목상권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확대 · 제주도가 골목형상점가와 특화거리 상인조직을 대상으로 소비촉진 행사와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동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골목상권 및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상권을 23일까지 모집하며, 상인회 등은 상권의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활성화 사업계획을 마련해 신청할 수 있고 올해는 골목형상점가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도 추진됨. · 6월 도내 소상공인 체감경기 BSI가 61.1로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하는 등 체감·전망 경기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제주도는 CJ프레시웨이와 연계해 소상공인 외식업체 5곳의 로컬브랜드 육성을 지원하고 농협은행 제주본부는 제주신용보증재단에 17억9600만원을 출연함.
	감귤	- 하우스감귤 가격 호조 속 출하 증가 전망 · 제주 하우스감귤이 출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품질 개선에 힘입어 6월 도매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지감귤도 생육이 양호하고 착과량이 증가해 올해 생산량 확대가 기대되는 등 감귤 작황과 가격 흐름이 전반적인 호조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생산량 증가와 가온 시기 지연으로 6월에 감소했던 하우스감귤 출하량이 7월에는 전년 대비 3.6%, 8월 이후에는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에 따라 호조세를 이어온 가격이 출하량 증가의 영향을 받아 소폭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 감귤 가공공정 AI 전환, 국비 23억 확보

경제·관광	감귤	· 제주테크노파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제조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지역육성형 분야에 최종 선정되어 2년간 국비 23억1500만원을 확보했으며, 감귤 가공공정의 원물 선별부터 포장까지 전 공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는 'AI 기반 식품가공 AX 통합플랫폼' 구축에 나설 예정임. · 제주TP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감귤 가공을 기반으로 한 제주형 제조 AI 표준모델을 마련해 도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으며, 제조현장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제주형 제조 AX 혁신모델 구축과 지역 제조업 전반의 스마트화 가속이 기대됨. - 하우스감귤 전국 판촉·동남아 수출 개척 ·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2일부터 15일까지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농협-롯데카드 제주 농산물 상생 마케팅' 행사를 열어 하우스감귤 70톤을 할인 판매하며, 롯데카드가 상생 마케팅 재원 6000만원을 지원해 소비자는 최대 2000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제주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15일부터 17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2026 말레이시아 국제 식품&음료 전시회(MIFB)에 감귤과 키위, 우도 땅콩 누룽지, 한라산 화산석 초콜릿 등 도내 식음료 6개 기업과 참가해 현지 수출 상담을 밀착 지원하며 동남아 할랄시장 개척에 나섬.
-------	----	---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구조(예방), 차량(단속), 사기(사칭), 교사(학생), 폭염(기온)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구조 (예방)	- 해루질 관광객 밀물 고립, 해경 구조 · 4일 오후 10시 29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한도교 인근 간출암에서 청계를 잡기 위해 야간 해루질에 나섰던 20대 관광객 남성 2명이 밀물로 수위가 급격히 차오르며 고립됐다가, 물이 차서 못 나간다는 신고를 받고 육상 순찰팀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한 서귀포해경에 의해 전원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확인됨. · 구조 과정에서 해경 구조팀 1명이 발목을 다쳤으며, 7일 오후 10시 15분쯤에는 제주시 외도포구 앞 약 250m 해상에서 동력 장치 파손으로 표류하던 고무보트에 탄 남성이 무사히 구조되는 등 여름철 야간 해루질과 해상 레저 활동 중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어선 좌초·응급환자 등 긴급구조 잇따라 · 5일 오전 5시 56분쯤 제주시 탐동 월파방지 방파제 내측 해상에서 6명이 승선한 성산선적 연안연승어선 A호(13t)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신고를 받은 제주해경이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 구조대 등을 급파해 승선원 6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하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2일 오전 8시 31분쯤에는 평화로를 주행하던 관광버스에서 심방세동 병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심한 흉통을 호소해, 119종합상황실이 관할 구급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제주안전체험관 전문 교관들과 신속한 공조로 응급처치와 구조에 나서는 등 민관 협력 구조 사례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남. - 테트라포드 추락사고 대비 합동 구조훈련 · 제주동부소방서가 잇따라 발생하는 해안가 테트라포드 추락사고에 대비해 지난 5일 구조대원과 고가사다리차 운용대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인명 구조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번 훈련은 여름철 해안 관광객 증가와 테트라포드 추락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확인됨. · 최근 5년간 도내 테트라포드 사고는 모두 12건 발생해 이 가운데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동부소방서는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테트라포드에 올라가는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여름 휴가철 해안가 안전사고 예방 홍보와 현장 대응 태세 강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임.
	차량 (단속)	- 통학차량 원아 방치, 교사·기사 입건 · 제주경찰청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들은 지난달 15일 낮 12시 20분쯤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돌아온 뒤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만 4세 원아를 45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됨. · 방치된 원아는 통학차량 인근을 지나던 청원경찰에 의해 발견되어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당시 어린이집이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온 직후 발생한 일인 만큼 하차 여부 확인 등 통학차량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 차량 충돌·화재 등 사고 잇따라

	차량 (단속)	·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 4분쯤 서귀포시 서흥동 서귀포여자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SUV 2대와 승용차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해, SUV를 몰던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지고 승용차를 몰던 50대 여성도 다리를 다친 것으로 확인됨. · 6일 오전 1시 23분쯤에는 서귀포시 강정동 도로에 주차된 SUV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되며 소방서 추산 165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2일 오전 8시 5분쯤 제주시 일도2동 아파트에서는 승용차가 LPG 가스저장탱크를 들이받아 가스가 누출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함. - 공공부문 차량 부제 84일 만에 전면 해제 ·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정부의 에너지 수급 비상조치에 따라 지난 4월 8일부터 84일 동안 시행해 온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차량 홀짝제)와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가 7월 1일자로 전면 해제되면서, 석 달 가까이 이어진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모두 풀린 것으로 확인됨. · 이번 해제는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84일간 이어진 공공기관 차량 이용 제한과 공영주차장 부제 운영에 따른 이용 불편이 해소되면서 공직사회와 도민의 일상 회복 및 청사 방문 편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지역·사회	사기 (사칭)	- 소방기관 사칭 사기 10건, 피해 8070만원 · 올해 제주지역에서 확인된 소방기관 사칭 사기 피해는 총 10건, 피해액은 8070만원에 달하며, 사기범들은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점검을 실시한다며 위조 공문서나 문자를 보내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요구한 뒤 비용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확인되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됨. · 숙박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이 주요 표적이 되는 가운데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진수)는 소방기관이 특정 업체의 물품 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프라인 홍보물과 온라인 카드뉴스, SNS를 활용한 집중 예방 홍보를 추진해 도민 피해 차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됨. - 노쇼 연계형 사기 95건, 피해 33억원 ·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노쇼 사기 사건은 모두 95건으로 피해액이 약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음식점 단체 예약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대리구매를 요구한 뒤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노쇼 연계형 사기 수법이 잇따르는 것으로 확인됨. · 도내 횡집에는 10명 단체예약을 빌미로 400만원 상당의 고가 술을 특정 거래처를 통해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칭 노쇼 사기 시도가 잇따랐으며, 후불 결제를 제안하자 거절한 뒤 예약자와 거래처 모두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자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애월 아파트 시행사 40억대 사기 의혹 · '효성해링턴플레이스애월 아파트 관련 범죄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행사 대표의 연쇄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구속 수사과 제주도의 금융 규제책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촉구했으며, 투자 피해자는 34명, 피해 규모는 42억원으로 주장됨. · 시행사 대표는 42억원대 유사수신과 76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과 수사를 받

지역·사회	사기 (사칭)	고 있으며, 예비조합원 투자금 편취 의혹과 하청업체 보증금 미반환 논란 속에 경찰이 횡령 등 추가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대책위는 수사기관에 건의문을 전달하며 엄정 처벌과 신속한 수사를 요구함.
	교사 (학생)	- 교사 고소·협박 수사 1년째, 엄벌 촉구 · 제주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 10명을 상대로 반복적인 아동학대 고소와 살해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에 대한 수사가 1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자, 제주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가 3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무고성 고소·살해 협박 가해자 엄벌 탄원 기자회견을 열어 신속한 기소와 엄벌을 촉구함. · 전국 교사 7609명이 엄벌 탄원에 동참했으며, 피해 교사가 살해 협박으로 경호원까지 고용한 채 1년째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호소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고발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와 무고성 고소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요구도 제기 됨. - 체육관 추락사고 교사, 대법 무죄 확정 · 제주시 모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학생이 높이 약 8m로 추정되는 디바이더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하면서 교사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어 형사 책임을 지지 않게 됨.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무죄 확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학생의 완쾌를 기원했으며, 학생들끼리 장난을 치다 발생한 사고까지 교사 책임으로 돌리는 관행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중학교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설명회 운영 · 제주도교육청이 중학생들의 고교학점제 이해를 높이고 체계적인 진로·학업 설계와 고등학교 진학 후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중학교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9월 초까지 운영하며, 8일 김녕중·애월중·제주중앙중·함덕중을 시작으로 도내 45개 중학교를 순차 방문함. · 설명회에서는 중학생들이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직접 만나 고교학점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으며, 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사와 협력해 학생의 배움을 지원하는 교육활동가 '오늘지기' 50명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역사·제주이해 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을 오는 11월까지 총 30시간 과정으로 운영함.
	폭염 (기온)	- 올해 첫 폭염주의보 발효, 특보 확대 · 제주지방기상청이 6일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시 동부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으며, 이는 지난해 6월 28일보다 8일 늦은 것으로, 7일 오전 11시에는 특보가 제주시 북부로 확대되고 첫 폭염특보가 내려진 당일 온열질환자도 발생하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됨. ·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며, 7일 오전 10시 기준 구좌 31.8도 등 도내 곳곳에서 30도를 웃도는 기온이 관측됐고, 폭염 속 제주민속옥일시장에는 쿨링포그가 운영되는 등 무더위 대응 조치가 곳곳에서 이어짐. - 첫 열대야 발생, 무더위 지속 전망

지역·사회	폭염 (기온)	· 서귀포시 남부와 제주시 북부에서 7일 오후 6시부터 8일 오전 9시까지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각 25.9도)으로 유지되는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으며, 폭염주의보가 제주시 북·동부와 서귀포시 동부로 확대되는 등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확인됨. · 기상청은 당분간 북부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 30도 안팎,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와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폭염특보가 확대되거나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온열질환 예방 등 폭염 대비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남. - 6월 평균기온 역대 4위, 장마는 지각 · 제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제주도 기후특성에 따르면 올해 6월 제주지역 평균기온은 22.3도로 기상관측 이래 역대 네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6년의 6월 평균기온이 모두 역대 6위권에 들 정도로 초여름 고온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11일 늦게 시작해 역대 세 번째로 늦었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38% 많았으며, 이른 무더위 속에 지난달 24일 개장한 도내 12개 해수욕장에는 개장 9일 만에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11만명이 넘는 피서객이 몰렸고 파라솔·평상 가격은 동결 운영되는 것으로 집계됨.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